

2023년도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결과

2023.4.

KJE 한일경제협회
Korea Japan Economic Association

목 차

I . 회의개최결과	9
------------------	---

II . 주요발표 및 토론 내용	10
-------------------------	----

[별첨1] 회의 일정	20
-------------------	----

[별첨2] 참가자명단	21
-------------------	----

[별첨3] 설문조사결과	26
--------------------	----

[별첨4] 언론보도내용	28
--------------------	----



第23回 韓日新産業貿易會議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 激動するビジネス環境、新しい未来をともに創造!

2023年 3月 30日(木) SEOUL | 韓國貿易協會, 韓日經濟協會, 日韓經濟協會, 日韓產業技術協力財団

[회의 전경]



[한국측 체어맨 개회인사]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일본측 체어맨 개회인사]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주) 회장

[내빈인사]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한국측 코디네이터 인사]



이수철 GH홀딩스 회장

[일본측 코디네이터 인사]



이와다테 요사히코(岩垂 好彦) (오비린대학 준교수)

[한국측 주최기관 인사]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일본측 주최기관 인사]



우치다 토시아키(内田 敏明)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발표자 세션(Ⅰ)]



이창우 국회FTA일자리센터장 / 월드FTA포럼 회장



마에카와 나오키(前川 直行)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장

[발표자 세션(Ⅱ)]



천경파 WISE FOREST(주) 대표이사



다카하시 마코토(高橋 誠)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 소장

[자유토론]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주) 대표이사



고동욱 한국우량제품진흥협회 협회장



이지평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이형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마사토미 류이치 한국마루베니 대표



오니시 에이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참사관



이준우 제오빌더 이사



이구치 카즈히로 한국미쓰이물산 대표



사공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카와카미 타카시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실장보좌



이병극 (주)캐리마 대표이사



임대영 배재대학교 교수

[리셉션 교류회]



I . 회의 개최결과

1. 일시·장소 : ' 23. 3.30(목), 09:00~15:30 서울 대면회의
- 서울 : COEX Conference Room 3층 327호
2. 주최기관 : 한일경제협회, 한국무역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3. 참가자 : 총 84명
- 한국측 : 정만기 체어맨(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 58명
- 일본측 : 아소 유타카 체어맨(아소시멘트 회장) 등 26명
4. 회의주제 :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
- 세션 1 : 한일 경제연계 확대, 세션 2 : 한일 상호교류 증진
5. 회의 개최결과

□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상정의제인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사전 전문가 회의로서의 역할 수행

- '23,3월 양자방문 한일정상회담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 경제인회의로서, 양국 간 메가FTA 협력체제 구축, 양국 미래자원 육성을 위한 기업의 역할, 상호교류 증진방안 등 한일협력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

□ 주요 제언내용

○ 한일 경제연계 확대 방안 제안

- (韓)한일 협력 방향 제안 (①디지털분야 협력, ②그린분야 협력, ③희토류 대체기술 공동개발 등 기술협력, ④한일FTA 체결 추진)
- (韓)한일 간 메가FTA 협력체제 구축 및 3대 협력사업 제안 (①회원국 메가FTA 교육시장 공동진출, ②RCEP 중소기업 공급망 지원 정책 공동참여, ③수출·일자리 견인 FTA자문관 사업 모범사례 공유)
- (日)한일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의 협력 제안 (JETRO, 한국 스타트업 기업 등 2019년이후 총 162건 지원 17건 성공, 스타트업을 축으로 한 지역간 교류를 실현한다면 다양한 가능성을 기대)

○ 한일 상호교류 증진 방안 제안

- (韓)한일 인적교류 협력 제안 (양국 미래 자원으로서의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 일한학생미래회의)
- (日)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일, 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제안 (지역외교를 통해 정부간 갈등구조에 대해 '중용', '좋은 측면'을 알릴 기회를 확대, 한일 기업간 필수거래사례 소개 등 기업역할 중요)

○ 기타 한일관계에 관한 제안

- (韓)한일 규제문제 공동연구, 지역간 FTA 협정 활용,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교류회 활성화, 그린수소기술 공동개발·수소산업 밸류체인 구축, 경제안보 협력, 기술이전 지원사업·디지털싱글마켓 구축, 첨단산업 분업구조 협력, 일본의 취업 매력홍보, 지자체 자매도시·문화교류
- (日) 시즈오카-충청도 FTA 협정 체결 추진 검토

Ⅱ. 주요발표 및 토론 내용

□ 개회인사

- (한국측 চে어맨/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 ▲대통령 방일 성과 및 방향성, ▲양국관계 경색 속에서 교역·투자 회복세 시현, ▲교역 위축으로 인한 기업 애로(신규투자기회 창출 및 거래선 발굴) 및 업계 요구사항(투자·기술협력 확대, CPTTP 가입에 따른 시장확대, 소재부품의 안정적 확보), ▲양국협력 방향(디지털분야 협력, 그린분야 협력, 희토류 대체기술 공동개발 등 기술협력)
- (일본측 চে어맨/아소 유타카 회장)
 - ▲ 코로나19 극복(상호 방문국 1위 국가)·한일관계 정상화 향해 기탄없는 의견교환 기대(한일관계 정상화 모멘텀 고조, 그 실현을 향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이게 할 것인지?)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를 4년만에 대면회의로 개최, 건설적인 경제·인재·문화교류 방안 논의, ▲한일 양국 경제협회·한일 양국 산업기술협력재단 교류 사업의 활발한 재개(실시할 수 없었던 3년분을 되찾아 더욱 성장한 것으로서 정상화)
- (한국측 내빈/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 그간 양국 경제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한 양국 경제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정상외교의 일본 방문 후 한일 관계 정상화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경제계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줄 것을 당부
 -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 강화, 자원무기화 공동대응, 탄소중립 이행 공동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 한일 기업 간 협력을 강조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일본측 코디네이터/)
 - 한일 공동과제 해결 협력 중요
 - 중소기업 밸류체인 대응 등

- (한국측 주최기관/이수철 GH홀딩스 회장)
 - 민간차원 교류 기대
 - RCEP 발효, 다자간 협정(CPTTP 가입)과 진정한 한일 FTA 체결 기대
 -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에 반영, 발표

- (일본측 주최기관/우치다 토시아끼 일한경제협회 전무)
 - 작년 이 회의에서는 ‘새로운 스테이지’ 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많은 분들로부터 귀중한 의견을 받아, 그 내용을 이후 개최한 제54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에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역지사지)’ ‘경제인이 앞장서서 대처’ 한다는 내용을 담았음
 - 최악이라는 양국관계에도 드디어 터널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 윤석열 대통령님의 일본 방문 등 한일관계는 개선을 향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음. 이러한 타이밍에 개최되는 본 회의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 하는 출발점이 될 것임
 - 오늘 회의 결과는, 5월로 예정된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에서 공동성명이라는 형태로 발표되며, 새로운 연계의 힌트를 그리고 새로운 메리트와 시너지를 찾기를 기대함

- (한국측 주최기관/서석승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3/29 만찬교류회에서 일본대사관 차석총괄공사의 참석, 3/30 본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참석으로 한일관계 관심표시,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회의
 - 한일관계 정상화를 향해, 더 잘해 내야겠다는 각오, 마음가짐

□ 세션1 (한일 경제연계 확대) 주제발표

<p>□ 발표자 : 이창우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FTA 일자리센터장</p> <p>□ 주 제 : 「메가FTA 시대 초 국가 대응전략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일 협력방안 제안 ○ 한일간 메가 FTA 협력체제 구축 및 협력사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간 협력하여 메가 FTA 교육시장 공동진출 : RCEP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자격증, 교재 등을 개발하여 일본 및 RCEP에 보급 - 한일간 RCEP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공동 참여 : RCEP 14조, CPTPP 24조 등 정부의 중소기업 공급망 지원정책에 적극 참여 필요 - 중소기업 수출과 일자리 창출, FTA 자문관 사업을 모범사례로 공유 - 메가FTA, Digital Trade, ESG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한일 공동대응

- 발표자 : 마에카와 나오유키(前川 直行)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장
- 주 제 : 일본과 한국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비교

○ 일본과 한국이 안고 있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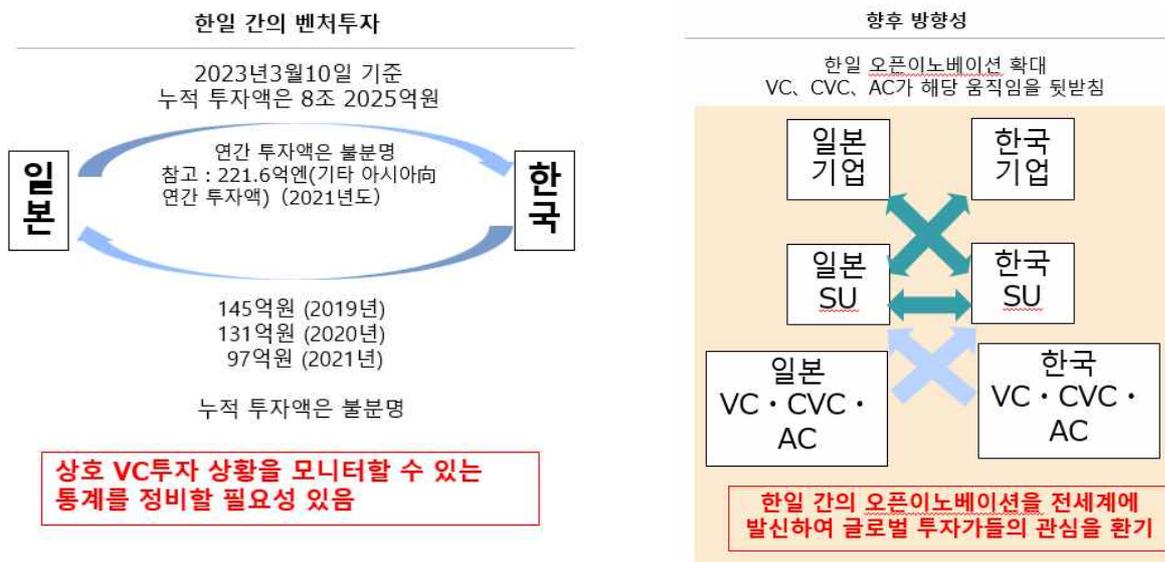
- 일본은 '05년부터, 한국은 '21년부터 인구 감소. 인구감소가 계속될 전망
- 에너지 자급률, 식량자급률도 낮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 글로벌 과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 역사적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음
- 과제를 극복하고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혁신이 중요
- 오늘날의 혁신과 신규고용은 스타트업이 견인하고 있음

○ 일본과 한국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이란, 스타트업 (SU) 기업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함
- 일본, 한국 모두 국내 에코시스템은 도쿄, 서울에 집중, GSER2022에 따르면 서울은 「우수한 인재」, 「혁신적인 도시」, 도쿄는 「큰 시장」, 「디지털화에 대한 강한 니즈」, 「맞춤 서포트」 평가
- 에코시스템 비교
 - * 창업 수는 한국이 월등히 많으며 기업가정신도 한국이 높음
 - * 일본에서는 도쿄 이외의 지방 에코시스템 육성도 정책적으로 실시.
 - * CVC(기업형벤처캐피탈)수는 일본이 많음. 한국은 향후 CVC활동 증가전망
 - * 일본은 대학발 벤처에 특화하여 육성해 온 역사가 있음. 앞으로는 한일 양국 모두 딥 테크 육성에 힘 쏟을 전망

○ 한일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의 과제와 기회

- 벤처 투자액, 유니콘 수와 관련해서 일본도 한국도 글로벌 존재감이 낮음
- 활발한 한일 간의 왕래를 활용하여 스타트업(SU)을 축으로 한 지역간 교류를 실현한다면 다양한 가능성을 기대



○ JETRO 활동내용

- 한국 스타트업 기업 등을 2019년도~2022년도까지 4년도에 걸쳐 총 162건 지원, 성공 전수 17건, 서울사무소 단독 기업설명회 실시, 한국 SU과 일본기업 간의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 (韓 체어맨) 스타트업 사업결정 중요 요소 상호 조사 비교하여 협력기대
 - 한일 간 규제 문제 등 보완설명 요청
- (JETRO) 비즈니스 어려운 부분 고민
 - 규제 때문에 비즈니스 선택, 성장하고 나서 규제완화되면 큰 시장
- (SJC) 양자간, 다자간 FTA의 실제 효과 차이에 대해 질문
- (국회FTA고용센터) 다자간 이유는, ①시장크기(규모의 경제), ②무역비용 차이
 - 가치사슬문제(연동이 안됨), 공급망 커질수록 이득, 장점이 많아 다자간으로 가고 있음
- (산업부) JETRO의 스타트업 지원에 감사, 규제해소가 중요
- (韓 체어맨) 공유경제가 중요, 혁신위해 일본은 가능한지?
 - 한국은 타다 택시, 철수
- (JETRO) 어플리케이션, 타고 싶을 때 관점이 중요
 - 미국 우버택시 편리, 신뢰(시간준수, 청결, 언어문제 등)
 - 스타트업 기업의 일본진출시 어려운 부분도 있고 포기사례도 많음
 - 규제당국과 대화할 수 없었던 적도 있었음
 - 일본에 드론의 시가지 밀집지역 사용허가, 점진적 증가
- (韓 체어맨) 미국 스타트업 성공, 앞서나가고 있음
 - 한일은 뒤쳐져 있으며, 한일이 규제문제 공동연구, 규제 풀어나가기를 기대
- (SJC) 싱가포르 사례, 그랩(Grab)서비스와 택시가 양립
- (산업연구원) CPTTP가입 긍정 검토, 한국의 가입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하이레벨 FTA인 한일 FTA가 필요한지?
- (국회FTA고용센터) CPTTP는 11개 회원국 동의 필요, 개별FTA 체결국의 불만해소 요구, 한국의 과제는 중소기업 피해, 수산물·농업 등 보조금이 문제
 - 거대시장 형성, 일자리 창출, 새로운 산업 탄생 등 효과

- (경산성 한국실) CPTTP 멀티 담당이 아니어서 코멘트 어려움, 과제가 다양하며 장단점 감안하여 검토, 담당과에 이야기 듣고 답변

□ 세션2 (한일 상호교류 증진) 주제발표

<p>□ 발표자 : 천경파 WISE FOREST(주) 대표·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상임이사</p> <p>□ 주 제 : 「한국인 유학·취업·창업으로 본 한일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의 일본 경험(한국인 유학·취업·창업)으로 본 한일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기업의 역할(원시안적 인재양성, 활발한 인턴십) - 양국 미래 자원으로서의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 일한학생미래회의 ○ 한일 학생들이 함께, 또는 각각 '스타트업 대회' 만들어 주기를 제언
<p>□ 발표자 : 다카하시 마코토(高橋 誠) 시즈오카현 한국주재원 사무소장</p> <p>□ 주 제 : 「시즈오카현의 지역 외교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있는 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역에 따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우호적 호혜·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지역차원의 국제교류·국제협력 * 현의 뛰어난 기술 등을 살려 산업·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성의를 가지고, 상호 메리트 있는 시책을 전개, 민간단체·기업, 현민 교류 촉진 ○ 중점적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덕이 있는 사람·동경을 낳는 지역을 만드는 교류의 촉진> ⇒우호친선, 교육 <스포츠·관광 교류의 촉진> <통상의 촉진> ○ 교류 지역 : 충청남도, 중국 저장성(浙江省), 대만, 동남아시아·인도, 미국 ○ 교류 활동 : 조선통신사 기념다도회·우호교류, 동아시아문화도시 세미나·공예체험(전주시 등), 충남 우호도시 사업(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 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일, 기업이라서 할 수 있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도 「사람」(개인)도, 서로 이해하지만, 싸우기도 한다. - '국가'와 '국가'가 되면,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게 된다. - 「지자체」(기업도)는 「사람」과 「국가」의 중간의 위치에 서 있다. - 「국가」도 「지자체」도 「사람」(민)의 거스를 수 없을 때가 있다. Ex. 2019년 불매운동은 지자체가 감정적 민의를 선동(선동됨?) - 시즈오카현 「지역외교」 → 문화의 차이를 인정, 우호적 호혜·상조의 정신 '자립적 신뢰관계 구축' → 정부간 갈등구조에 대해 '중용'을 취할 수 있다

- 이러한 '현민' '도민'을 키우는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체험과 배움의 기회)
- 한일 간 '지금 살아 있는' 연결고리의 '좋은 측면'을 알릴 기회를 확대
- 성인 및 기업의 역할이 중요
- (Ex. 한일 기업 간 중요한 필수 거래 사례 소개 등)

- (배재대) 학생감소 보완책으로서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상품·자본·기술·인재의 상호보완을 위해 대학·지자체 참여 및 차세대 전문가 교류 제언
 - 중앙정부·지자체 채널이 막힐 때도, 산학관 교류는 지속적으로 교류 가능
- (시즈오카현) 자치단체가 교류 어려울때도, 대학은 자유롭게 영향받지 않고 교류 가능
 - 조선통신사, 젊은세대 교류, 학생들 간 교류는 좋은 생각임
- (국회FTA고용센터) 한국 자격증(건축 등)과 일본 자격증 상호 인증하면, 교류 확대 및 취업확대
 - FTA 협정문 활용, 한일 간 인증
 - 지자체 FTA, 인천시-위해시 시장 통합 사례 소개, 시즈오카현에 큰 틀의 FTA 준수, 도시간 FTA 충청권-시즈오카 FTA 가능성 질문
- (와이즈 포레스트) 신산업, 경제인회의 등에 학생들도 참가하면 지식 등 향상, FTA 등의 이야기 공부가 됨. 미래설계하는 학생들도 참석 정보습득 희망
- (국회FTA고용센터) 오발코리아, 재팬, 차이나 학생들도 글로벌 리더 육성 차원에서 경제인회의 참가 할 수 있도록 교류기회 제공 희망
- (시즈오카현) 지역 FTA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음, 충남-시즈오카교류 증으로 시즈오카-충청도 FTA 협정 맺기를 기대
- (국회FTA고용센터) 인천-중국 위해, 전체 FTA들 속에서 더 자유롭게 활용, 트럭·기차 등 하역 없이 지역 이동 가능 메리트
 - 바지선 철도 이용, 트럭 100대의 운송 효과

- (시즈오카현) 시미즈항이 있으며 참치로 유명, 여객선 유치 및 충청도와 의 교류 진행해 나가기를 희망
- (한국우량제품진흥협회) 한일재단의 중소기업 지원 덕분에 성장, 한국물 산전 개최시 일본 현지 유학생 활용 가능한지 질문
 - 사세보시-과주시 특산물 판매 실적, 일본 유명백화점 자사의 힘만으로 진출 어려움, 시즈오카현에서 보증, 추천 기대
- (와이즈 포레스트) 유학생 분포지역 확대 추세, 아오모리·아키다·오키 나와 이외 지역은 현지 유학생 서포트 가능

□ 전체 토론

- (한일경제협회) ‘23. 5.16~17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안내
- (일한경제협회) 최근 한일정상회담 등 여러 행사 개최되었고, 국무총리 및 외교장관 행사 등에 배석하여 제3국 공동진출 사업(120건 27조엔 규모) 리스타트, 고교생교류 캠프 참가학생 감상문 및 재개최 추진 소개
- (한국외대) 국제적 협력사업 현실화 필요, 양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 시작 필요
 - 제3국 협력, 반도체(파운드리) 글로벌 소싱
 - 각 경제단체, 연구소 중심으로 협력 아이템 심도있게 논의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
- (국회FTA고용센터) 한국은 본 글로벌 창업 미진, 본 FTA 창업 기업간 제휴, RCEP 공종진출 제언
- (와이즈 포레스트) 한국인 유학생의 일본창업시 지자체+유학생단체 프로그램 연계, 지역 스타트업 발굴 및 구체화 검토
- (도레이첨단소재) 경제분야 성공의 비결(우수한 기술력, 의견갈등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면 윈윈방향 찾을 수 있음)
 - 일본계 외투기업 투자활성화 간담회(대한상의)에서 애로사항 건의
 - * 옐로우 국가에서 화이트 국가로 전환 해결, 경산성 허가 필요
 - * 외투기업 인센티브(법인세 감면, 현금지원) 부활, 강화

- 도레이에서 2025년까지 3년간 1조원 투자 검토

- (日 체어맨) 북한 리스크, 중러의 태평양 진출 등 공동 리스크 증가, 자원부족, 식량부족,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 현역 경제인으로서 어떻게 서포트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
 - 모두가 움직여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사명감을 갖고 모멘텀을 지속
- (일본대사관) 대통령 선거, 한일정상회담 큰 걸음 경험, 한일 공동과제 (국제정세, 자원부족국가, 지구환경문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 협력모색
- (숙명여대) 한국유학생 감소 이유 질문, 경제계에서도 대학학회 활동을 지원해주면 한일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
- (와이즈 포레스트) 중국대륙에 관심이 높아져서 중국으로 많이 유학했으나, 일본으로 다시 되돌아 오고 있음(日대학의 글로벌화)
- (韓 체어맨) 배터리·그린·수소산업·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에 관한 것은 지원가능하나, 관광 등 신산업과 먼 것은 전문단체에 접근 필요
- (제오빌더) 정치이슈로 한일관계 공백 발생, 공급망 방향 고민 등 비즈니스 방향 설정에 도움될 수도 있으며 미래 생존 위한 부단한 노력 필요
 - 신산업회의, 경제인회의 지속적 운영 위해 역발상이 필요, 산업현장에 대학생·차세대·청년·유학생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
- (마루베니) FTA, 스타트업, 유학생 감소요인, 지역외교의 중요성 등 많은 공부가 되었음
- (캐리마) 한국은 신기술에 빨리 접근, 일본은 상품화·고객우선에 장점, 성공사례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
- (JETRO) 일본에는 본 FTA 스타트업 없어 미지의 부분으로 검증이 없음
 - 상품은 고객이 평가, 기술은 산업으로 연결해야 세계시장으로 진출

□ 총괄·마무리

- (日코디네이터) 행동 변화 중요, 글로벌 시장 향해 협력 중요, 한일 FTA/EPA 체결 추진 검토, 모멘텀 살려 결실있는 신산업 무역회의 기대

- (韓코디네이터) FTA 시급히 검토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일 간 진정한 FTA가 되도록 민간 여론을 수렴, 양국의 장점을 살려 제3국 진출 협력, 미래경영활동을 위해 미래세대인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 한일 간 비즈니스 성사를 위해서는 빈번한 만남이 중요, 스킨십 할 수 있는 회의를 기대, 청년 세대도 회의에 참관
- (日체어맨) 2023년에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과가 나올때까지 행동 필요, 윤 대통령께서 방향을 전환하였고 일본도 미래세대 위해 함께 움직여 나가야 함을 강조
- (韓체어맨) 정치 상황 변화는 무역량에도 변화, 양국 간 분위기 나빠질 때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지탱해 주는 힘이 됨
 - 스타트업, FTA, 기후변화, 탄소중립, 인적교류 확대, 저출산 고령화, 신산업 분야 협력 강화(수소, 재생에너지, 디지털, 반도체 분야 등)
 - 미래파트너십기금에 참여, 청소년 교류 중요
- (일한경제협회) 양국 관계가 개선되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추진하는 민간 교류에서도 복층적, 다원적으로 폭넓게, 또한 가속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
 - 정치외교와 경제는 양륜이기 때문에 양국관계의 개선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 경제협력 확대로 양국의 유대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 생각함
 -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을 다음 한일경제인회의로 연결하여, 회의의 성공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각 방면에 제언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 (한일경제협회) 경제인회의 의지를 담아 제3국 공동진출(120건) 등 사업을 추진, 한일의 연결고리 역할 수행
 - 고교생교류 캠프 등 청소년 교류 사업, 예산범위내 지원
 - '23. 5.16~17 서울에서 제55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참고 1>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그 외 코멘트 · 질문사항(서면)**

<p>■ 한국산업단지공단 장필수 전문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일간 기술, 자본, 인재, 시장 등의 교류 활성화가 모두 확보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들 요소를 한일간 국제협력을 통하여 공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신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이러한 한일간 국제협력차원에서 “한일 상호 발전적인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교류회 활성화”에 대한 노력과 협력,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p>■ 유콘 크리에이티브 (주) 구필현 부사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부터 韓日/日韓 관계는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이라도 韓日/日韓 경제협력에 절대적으로 방해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의
<p>■ 호라산 그린에너지 홍윤근 대표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심각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탄소저감 정책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기술 발전 및 석탄경제의 감축이 지속되고 있음. -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린수소 생산 및 수소경제의 확장 추세에 따라 그린수소기술 공동개발 및 수소산업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제안 -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높은 양국의 현실을 감안, 개발이 필요
<p>■ LG경영연구원 배민준 연구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학적 위기 속 한일 간 경제안보 협력의 필요성
<p>■ 신아시아산학관협력기구 양재영 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일간 기술, 자본, 인재, 시장 등의 교류활성화가 모두 확보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들 요소를 한일간 국제협력을 통하여 공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신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이러한 한일간 국제협력차원에서 기술교류협력 차원에서의 “기술이전지원사업”, 또한 한일간 교역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싱글 마켓 구축”에 대한 노력과 협력,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p>■ 한국산업관광협회 김혜진 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특히, 한일간 국제협력차원에서 “산업관광 활성화”에 대한 노력과 협력,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p>■ Mynavi KOREA Corporation 나기라 타로 대표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취업 지원하는 우리로서는, 일본 여행자가 증가하는 것은 기쁜 한편, ‘상대적인 일본의 지위 저하 (예: 급료가 오르지 않는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엔저, 무역 적자...등)’에 관한 보도가, 해외에서도 증가하면, 일본 취업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는 느낌이 듦 - 취직처로서의 일본의 매력을 한층 더 내세우는 대처가 필요함
<p>■ 한국마케팅연구원 이정국 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서비스 해외마케팅 수출입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본시장 점유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p>■ (사)동북아공동체ICT포럼 구교광 상근부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분야에서 한일간 수출 및 일자리 창출 협력의 중요성 - 한일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일본 정부의 Open mind와 한일관계의 중요성

[별첨1]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3. 29 (수)	18:30~20:00 (90)	교류회 (장소 : INTERCONTINENTAL SEOUL COEX 30F JUPITER Suite)
3. 30 (목)	08:30~09:00 (30)	접 수 (장소 : COEX Conference Room 3층 327號)
	09:00~09:05 (05)	개 회
	09:05~09:25 (20)	개회인사
	(10)	▶정 만 기 한국측 চে어맨 / 한국무역협회 상근 부회장
	(10)	▶아소 유타카(麻生 泰) 일본측 চে어맨 / 아소시멘트(주) 회장
	09:25~09:35 (10)	내빈인사
	(10)	▶정 대 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09:35~10:05 (30)	코디네이터·양국 주최기관 인사
	(7)	▶이 수 철 한국측 코디네이터 / (주)GH Holdings 회장
	(7)	▶이와다레 요시히코(岩垂 好彦) 일본측 코디네이터 / 오베린(桜美林)대학 준교수
(7)	▶서 석 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7)	▶우치다 토시아키(内田 敏明)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10:05~11:20 (75)	세션(Ⅰ) : 한일 경제연계 확대	
(20)	▶이창우 국회FTA일자리센터장 / 월드FTA포럼 회장 「메가 FTA 시장 초 국가 대응전략 과정」 - 수출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한일 협력방안 제안	
(20)	▶마에카와 나오키(前川 直行)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소장 「일본과 한국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비교」	
(35)	▶ 1세션 질의응답	
11:30~12:30 (60)	오찬 (장소 : COEX Conference Room 3층 327號)	
12:40~13:55 (75)	세션(Ⅱ) : 한일 상호교류 증진	
(20)	▶천경파 WISE FOREST(주) 대표이사 「재일 한국인 유학, 취업, 창업으로 본 한일관계」	
(20)	▶다카하시 마코토(高橋 誠)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 소장 「시즈오카현의 지역외교」 - 지방자치단체라서 할 수 있는 일	
(35)	▶ 2세션 질의응답	
13:55~14:15 (20)	커피브레이크	
14:15~15:10 (55)	전체토론	
15:10~15:30 (20)	양국 코디네이터 총괄 양국 চে어맨 총괄 양사무국인사 / 폐회	

[별첨2]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참가자 명단

【한국측】

	姓名		所屬 · 職責	
1	鄭 晚 基	JEONG Marn-Ki	(社)韓國貿易協會 常勤副會長	Chairman
2	鄭 大 鎭	JEONG Dae-Jin	産業通商資源部 通商次官補	來賓人事
3	李 洙 喆	LEE Soo-Chul	(株)GH Holdings 會長	Coordinator
4	徐 錫 崇	SEO Seok-Soong	(社)韓日經濟協會 常勤副會長	主催機關
5	金 起 鉉	KIM Gi-Hyun	(社)韓國貿易協會 常務	
6	李 昌 雨	LEE Chang-Woo	國會FTA雇用CENTER長 / World FTA Forum 會長	Session I 主題發表
7	千 經 坡	CHUN Kyoung-Pa	WISE FOREST(株) 代表理事	Session II 主題發表
8	李 泳 官	LEE Young-Kwan	Toray Advanced Materials Korea Inc. 會長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9	朴 南 淑	PARK Nam-Sook	共生國際特許情報 代表 (社)韓日經濟協會 常任理事	
10	高 東 郁	KO Dong-Uk	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 會長	
11	具 教 光	KOO Gyo-Gwang	(社)東北亞共同體ICT Forum 常勤副會長	
12	丘 必 鉉	KOO Pil-Hyun	UCONCREATIVE CO.LTD 副社長	
13	金 江 熙	KIM Kang-Hee	東和 Entec 會長	
14	金 在 孝	KIM Jae-Hyo	(社)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副理事長	
15	金 志 哲	KIM Ji-Chul	Big Bang Ventures, INC. 代表理事	
16	金 平 煥	KIM Pyeong-Hwan	Korea Electric Power Industrial Development Co., Ltd. 代表理事	
17	金 賢 日	KIM Hyun-Yel	般珉洋行 代表理事	
18	金 惠 珍	KIM Hye-Jin	Korea Industrial Tourism Association 理事	
19	柳 樂 太郎	NAGIRA Taro	Mynavi KOREA Corporation 代表理事	
20	盧 運 夏	ROH Un-Ha	韓國Media映像教育振興院 理事長	
21	朴 成 振	PARK Sung-Jin	TOMONI KOREA 代表	
22	朴 鍾 喆	PARK Jong-Chul	Unitech Korea Co., Ltd 理事	
23	裴 敏 峻	PAE Min-Jun	LG經營研究院 研究委員	

24	司空 穆	SAKONG Mok	産業研究院 研究委員	
25	宋 錫 燦	SONG Suk-Chan	韓國優良製品振興協會 顧問	
26	徐 永 錫	SEO Young-Seok	SNK Ventures 理事	
27	梁 在 英	YANG Jae-Young	新ASIA產學官協力機構 理事	
28	李 東 卓	LEE Dong-Tak	(社)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事務總長	
29	李 炳 克	LEE Byung-Keuk	CARIMA CO., LTD. 代表理事	
30	李 承 律	LEE Sung-Rul	(社)東北亞共同體文化財團 理事長	
31	李 章 範	LEE Jang-Bum	中小企業振興研究會 會長	
32	李 廷 國	LEE Jeong-Kook	韓國MARKETING研究院 院長	
33	李 俊 雨	LEE Jun-Woo	Zeobuilder Co., Ltd. 理事	
34	李 地 平	LEE Ji-Pyeong	韓國外國語大學校 特任講義教授	
35	李 亨 五	LEE Hyung-Oh	淑明女子大學校 教授	
36	林 大 永	LIM Dae-Young	培材大學校 教授	
37	張 弼 秀	JANG Pil-Soo	韓國產業團地工團 專門委員	
38	鄭 鎬 成	JUNG Ho-Sung	三星經濟研究所 首席研究員	
39	星 昂	HOSHI Subaru	三鎬貿易(株) 代表理事	
40	洪 起 正	HONG Ky-Jeong	友情bakeware 顧問	
41	洪 潤 根	HONG Yun-Gun	Khorasan Green Energy 代表理事	
42	洪 이 식	HONG Isaac	JI Corporation 代表	
43	朱 原 爽	JOO Won-Seok	産業通商資源部 東北亞通商課長	Observer
44	李 政 勳	LEE Jung-Hoon	産業通商資源部 東北亞通商課 事務官	Observer
45	金 雅 林	KIM Ah-Rim	産業通商資源部 東北亞通商課 事務官	Observer
46	安 光 善	AHN Kwang-Seon	産業通商資源部 東北亞通商課 主務官	Observer
47	鄭 熙 澈	JUNG Hee-Chul	(社)韓國貿易協會 室長	事務局
48	河 珠 蓮	HA Ju-Yeon	(社)韓國貿易協會 TEAM長	事務局
49	金 在 浩	KIM Jae-Ho	(社)韓國貿易協會 課長	事務局
50	鄭 珉 浩	JUNG Min-Ho	(社)韓國貿易協會 代理	事務局

51	林 蔡 銀	LIM Chae-Eun	(社)韓國貿易協會 代理	事務局
52	趙 德 卯	CHO Duck-Myo	(社)韓日經濟協會 事務局長	事務局
53	金 正 鎬	KIM Jung-Ho	(社)韓日經濟協會 部長	事務局
54	徐 光 賢	SUH Kwang-Hyun	(社)韓日經濟協會 次長	事務局
55	李 裕 卿	LEE You-Kyong	(社)韓日經濟協會 課長	事務局
56	金 槿 泰	KIM Geun-Tae	(社)韓日經濟協會 研究員	事務局
57	劉 崇 勳	YOO Sung-Hun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室長	事務局
58	崔 有 繕	CHOI Yoo-Sun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專任研究員	事務局

【일본측】

	姓名		所屬 · 職責	
1	麻生 泰	Aso Yutaka	日韓經濟協會副會長 麻生Cement株式會社 會長	Chairman
2	岩垂 好彦	Iwadare Yoshihiko	桜美林大學 准教授	Coordinator
3	前川 直行	Maekawa Naoyuki	日本貿易振興機構 (JETRO) Seoul事務所 所長	Session I 主題發表
4	高橋 誠	Takahashi Makoto	靜岡縣Seoul事務所 所長	Session II 主題發表
5	井口 和容	Iguchi Kazuhiro	韓國三井物產株式會社 代表理事社長、 S J C 理事長	
6	長谷川 浩二	Hasegawa Koji	韓國伊藤忠株式會社 代表理事社長	
7	大橋 乃介	Ohashi Daisuke	韓國住友商事株式會社 代表理事社長	
8	及能 誠久	Kyuno Motohisa	韓國東レ株式會社 副代表	
9	正富 竜一	Masatomi Ryuichi	韓國丸紅株式會社 代表理事社長	
10	山本 和則	Yamamoto Kazunori	日本航空株式會社 韓國支店 支店長	
11	中村 伸吉	Nakamura Shinkichi	株式會社三菱UFJ銀行Seoul支店支店長	
12	李 海 昌	Lee HaeChang	日本貿易振興機構 (JETRO) Seoul事務所 部長	
13	大里 徹平	Osato Teppei	日本商工會議所Seoul事務所 所長	
14	中川 一也	Nakagawa Kazuya	株式會社みずほ銀行Seoul支店 執行理事 · 支店長	
15	谷川 輝記	Tanigawa Teruki	株式會社三井住友銀行 Seoul支店長	
16	小林 丈文	Kobayashi Takefumi	韓國三菱商事株式會社 理事	
17	高根 和正	Takane Kazumasa	駐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 參事官	Observer
18	大西 英司	Onishi Eiji	駐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 參事官	Observer
19	川上 隆	Kawakami Takashi	經濟產業省 通商政策局 韓國室 室長補佐	Observer
20	是永 和夫	Korenaga Kazuo	日韓經濟協會 顧問	事務局
21	內田 敏明	Uchida Toshiaki	日韓經濟協會/日韓產業技術協力財團 專務理事	事務局
22	中山 喜昭	Nakayama Yoshiaki	日韓經濟協會 常務理事	事務局
23	千吉良 泰三	Chigira Taizo	日韓產業技術協力財團 常務理事	事務局
24	金 侑 貞	Kim Yujung	日韓經濟協會 担当部長 青少年交流Center長	事務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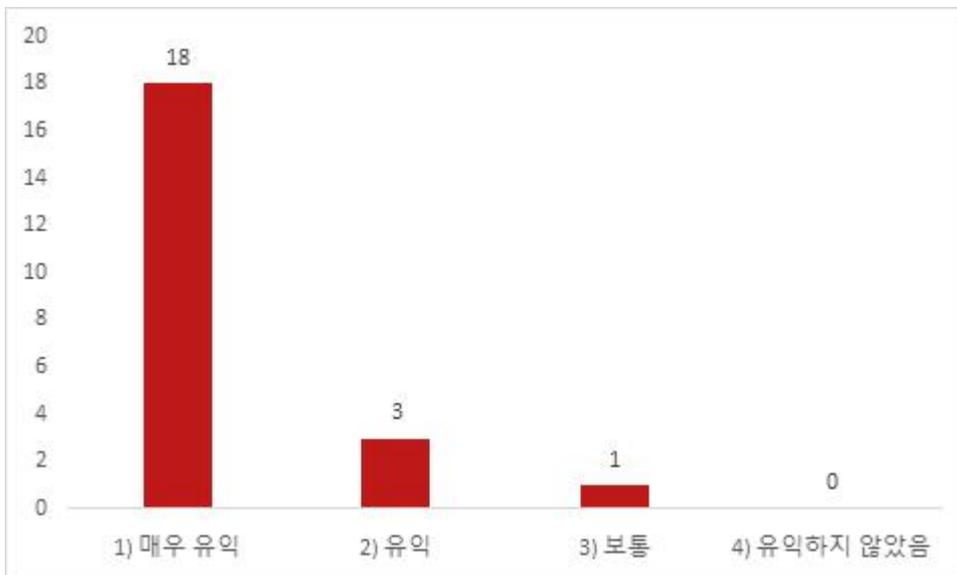
	姓名		所屬 ・ 職責	
25	梶山 智香子	Kajiyama Chikako	日韓経済協会 総務部長	事務局
26	伊沢 雅子	Isawa Masako	日韓経済協会 総務部	事務局

[별첨3]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설문(의견)조사 결과

1. 조사기간 :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당일 (3월30일)
2. 조사방법 : 회의장 현장 설문(의견) 조사
3. 조사대상 : 한일 양측 참가자 83명
4. 응답자수 : 22명

① 회의내용에 대한 종합평가



② 유익했다면 그 이유는?

- 한일의 이해 증진, 협력 아이디어 제공 (3)
- 한일관계의 최근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특히 재일유학생 관련정보
- 중단되었던 한일FTA 체결에 대한 청사진 제시
- 코로나 19 이후의 최초의 오프라인 회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자유로운 강의발표와 허심탄회한 토론이 매우 유익
- 다양성 / 양국협력 가능성 파악
- FTA의 발표 뿐만 아니라 잘 몰랐던 부분들을 질의응답에서 더욱 잘 알게 되었음
- 대면회의에서의 많은 대화가 좋았음 (3)
- FTA, 스타트업, 유학생, 지역외교 등 발표가 많았음 (2)

③ 종합 평가 의견 / 건의사항

- FTA 및 스타트업을 고민한 부분과 코로나 이후의 어떻게 서로의 니즈에 부합된 기술 및 제품을 런칭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더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부분으로 좀 더 집중되면 더욱 좋겠음
- 전체적으로 좋은 구성, 현실감 있고 인사이트 확보가 가능했음
-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별 세부분야에서의 교류상황을 논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각 분야별 중점 회의가 필요
- 신산업 무역 확대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발표가 있기를 희망
-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양국간 경제 교류가 활성화 될 첫 발판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
- 지방자치체 및 교류 등 더욱 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음
- CPTPP 등 FTA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전망에 대한 답변 등이 유익하였음
- FTA와 지역외교를 잘 배웠고 지자체-대학-기업간 협력으로 기업을 지원 했으면 좋겠음
- 한일 산업 및 무역 관계에 있어서 추진하고 있거나 성공한 기업의 브랜드 전시 및 홍보 진열로 회의 성과와 시너지를 창출했으면 함
- 4개 발표 전부 준비가 잘 되어 있었음
- 1박2일보다는 2박3일 정도의 일정으로 추가하면 좋겠음
- 신산업 창출에 한일공조, 해외에 생산거점 마련 필요 (공단조성 등)
- 회의의 진행 등이 상당히 좋았음
- 4년만의 대면에서의 회의였지만 상당히 회의가 충실했음

언론보도내용

B2

이슈

2023년 9월 31일 금요일 통일경제

한·일 경제 교류 봇물 터졌다... 일본계 기업들 “투자 늘릴 것”

정상회담 뒤 경제협력 본격화
무역협회 ‘산산업 회의’ 첫 테이프
이창양은 외무기업 9곳과 간담회
통화스와프 제게도 물밑 검토 중



한일 정상회담 이후 경제 교류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왼쪽)이 30일 서울 중구 대현상에서 열린 일본계 외무기업 투자 활성화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달 들어 정상회담, 수출규제 해제 등 한·일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면서 양국 경제 협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간 교류 행사가 물꼬를 트는 한편, 일본계 기업은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검토하기도 했다. 8년 넘게 중단된 통화스와프 논의의 필요성도 재검토되는 분위기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초까지 양국 경제계 사이에 진행되는 공식 행사만 5건이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등의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현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는 6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고, 첫 번째 한일 비

즈니스 전략대화는 6월 중에 부산이나 오사카에서 개최된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그동안 양국 기업 간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여의치 않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 협력과 3국 공동전출 등 기업 간 비

즈니스 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라고 말했다. 아소 유타카 일

한경제협회의 부회장은 “아래은 국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경제인들이 함께 협의해나갔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일본계 외무기업 9곳과 투자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앞으로 탄소섬유 등의 증설 투자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5000만 달러 규모의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시설을 국내 공장의 증설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 15일 조성 계획을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참여를 부탁했다.

또한 정부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 재무장관 회의 재개 등 협력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2015년 2월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의 재개는 의도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한재 정부 차원의 물밑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가 맺어지면 가속 통화인 엔화에 따른 외환시

장 안정과 투자심리 확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무역 시장으로 옮겨 감자가 앞으로 남은 관건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일 양국 간 교역 비중은 지난해 기준 6%에 그치면서 중국(21.9%)에 훨씬 못 미쳤다.

수출규제 해제 등으로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더라도 반도체 공급망 등이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2-24일 무렵이 국내 기업 187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63.6%가 ‘한일 정상회담이 회사 비즈니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데 동의했다. 김경훈 무역연구위원은 “반도체 분야의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고품질의 일본 제품 수입이 원활해지는 건 국내 기업의 비유 절감,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정용훈 기자
sakshoon@joongang.co.kr

A4 2023년 9월 31일 금요일

종합

한국경제

이창양 “한국 투자하는 日 기업에 세제 지원 확대”

(산업부 장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日 소부장 적극적 투자 기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30일 한국에 투자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활성화 간담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계 외무기업의

적극적인 국내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기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투자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 향상과 생산공정 개선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우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투자 확대와 기업 간 협력에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에서도 세제 지원 확대와 첨단산업 분야 인센티브 확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혁신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해 발표한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생산 시설의 증설 투자 계획을 재확인했다. 투자 규모는 5000만 달러 이상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앞으로 탄소섬유 등

중설 투자 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니카 코야마 등 반도체용 소재·장비 기업도 국내 생산시설의 증설 투자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 무역협회와 일한경제협회 주최로 열린 제23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에서는 양국 정부, 기업, 학계, 경제단체 간 100여 명이 참석해 상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첫 양국 경제계 간 교류 행사다. 김소원 기자

했다. 이번 방미는 9월 10일간의 중앙미 순방길 중 항공기 급유를 위해 경유지에 들르는 차원에서 성사됐다. 차이 총통은 이틀간 뉴욕에 머문 뒤 다음달 1-3일 괌과 말라, 3-5일 벨리즈를 방문할 예정이다. 두 국가는 13개국뿐인 대만외 공식 수교국이다. 명목은 중남미 순방이지만 세계의 관심은 방미에 쏠린다. 차이 총통이 귀국길인 5일 로스앤젤레스(LA)에 들러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연설하고 미국 의정사(99인)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과 면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8일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 성격으로 보인다.

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결과는 미국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군사적 압박도 가했다. 대만 매체인 자유신보에 따르면 이날 대만 국방부는 대만해협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함정 4척과 군용기 10대를 포착했다. 미국은 중국의 반발에 반박했다. 29일 로이터통신은 국가정보국의(NSA)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번 경우는 방문이 아니다”며 “차이 총통은 2016년 이후 여섯 차례나 미국을 경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이번 경유를 구실로 상하 대만해협 주변에서 공격적 활동을 강화해선 안 된다”며 “중국이 과잉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우현 기자

한·일 경제 교류 봇물 터졌다...일본계 기업들 “투자 늘릴 것”

입력 2023.03.31. 오전 12:03 수정 2023.03.31. 오전 12:04



한·일 정상회담 이후 경제 교류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왼쪽)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에서 열린 일본계 외투기업 투자 활성화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달 들어 정상회담, 수출규제 해제 등 한·일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면서 양국 경제 협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간 교류 행사가 물꼬를 트는 한편, 일본계 기업은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8년 넘게 중단된 통화스와프의 논의 필요성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7월 초까지 양국 경제계 사이에 진행되는 공식 행사만 5건이다. 이날 한국무역협회 등의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는 6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고, 첫 번째 한일 비즈니스 전략대화는 6월 중에 부산이나 오사카에서 개최된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그동안 양국 기업 간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여의치 않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 협력·제3국 공동진출 등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라고 말했다.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은 "어려운 국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경제인들이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일본계 외투기업 9곳과 투자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앞으로 탄소섬유 등의 증설 투자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달 5000만 달러 규모의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시설 증설 투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니카 코리아 등 반도체용 소재·장비 기업들도 국내 공장의 증설 투자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 15일 조성 계획을 발표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참여를 부탁했다.

또한 정부는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 재무장관 회의 재개 등 협력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2015년 2월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의 재개 논의도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현재 정부 차원의 물밑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가 맺어지면 기축 통화인 엔화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과 투자심리 확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봄바람이 얼어붙은 무역 시장으로 옮겨 갈지가 앞으로 남은 관건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일 양국 간 교역 비중은 지난해 기준 6%에 그치면서 중국(21.9%)에 훨씬 못 미쳤다.

수출규제 해제 등으로 당장 극적인 변화는 없더라도 반도체 공급망 등이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22~24일 무협이 국내 기업 187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63.6%가 '한일 정상회담이 회사 비즈니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데 동의했다. 김경훈 무협 연구위원은 "반도체 분야의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고품질의 일본 제품 수급이 원활해지는 건 국내 기업의 비용 절감,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이창양 "한국 투자하는 日 기업에 세제 지원 확대"

입력 2023-03-30 18:08 수정 2023-03-31 02:27 지면 A4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日 소부장 적극적 투자 기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30일 한국에 투자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활성화' 간담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계 외투기업의 적극적인 국내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기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투자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 향상과 생산공정 개선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우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투자 확대와 기업 간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에서도 세제 지원 확대와 첨단산업 분야 인센티브 확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혁신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달 발표한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생산 시설의 증설 투자 계획을 재확인했다. 투자 규모는 5000만달러 이상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앞으로 탄소섬유 등 증설 투자 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니카 코리아 등 반도체용 소재·장비 기업도 국내 생산시설의 증설 투자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일한경제협회 주최로 열린 '제23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에서는 양국 정부, 기업, 학계, 경제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상호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첫 양국 경제계 간 교류 행사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무역협회 “수출기업 63.6%, 한·일 정상회담 경영에 긍정적”

입력 2023.03.30. 오전 8:16

제23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

우리 수출기업의 63.6%가 한·일 정상회담이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7.5%)’이라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기업들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특히 ‘양국 기업인 간 인적교류 증가(60.4%)’를 기대했다. ‘대(對)일본 수출 증가(58.3%)’ ‘일본 내 영업·판매 활동 개선(55.6%)’ 등도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3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는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수출기업 18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이날 열린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한일 간 산업·무역·투자 등 공통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 경제인 간 행사였다. 오는 5월 16일 열릴 예정인 '한일경제인회의'의 사전 회의 성격도 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 인사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앞으로 양국 기업들은 인접국에서 기대되는 무역과 경제적 이익을 누려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일본 수출 규제 해제를 계기로 반도체 소재·부품뿐만 아니라 K-콘텐츠, 소비재 등의 교역이 활성화되면 신규 무역 파트너 물색에 소요되었던 양국 기업들의 무역 거래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했다.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도 “지난 1월 이후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약 57만명이고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약 7만명으로 양국 외국인 방문객 1위 국가를 차지했다”며 “한일 양국 간 경제·인재·문화 교류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져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권오은 기자 oheun@chosunbiz.com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입력 2023.03.30. 오전 9:53 수정 2023.03.30. 오전 9:54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에서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30

hama@yna.co.kr

신준희(hama@yna.co.kr)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입력 2023.03.30. 오전 9:52 수정 2023.03.30. 오전 9:53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에서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30

hama@yna.co.kr

신준희(hama@yna.co.kr)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입력 2023.03.30. 오전 9:53 수정 2023.03.30. 오전 9:54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23회 한일신산업 무역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3.30

hama@yna.co.kr

신준희(hama@yna.co.kr)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입력 2023.03.30. 오전 9:53 수정 2023.03.30. 오전 9:54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23회 한일신산업 무역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3.30

hama@yna.co.kr

신준희(hama@yna.co.kr)

정대진 통상차관보,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입력 2023.03.30. 오후 1:28 수정 2023.03.30. 오후 1:29



(서울=뉴스1) =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3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3.30/뉴스1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입력 2023.03.30. 오후 1:28 수정 2023.03.30. 오후 1:29



(서울=뉴스1) =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3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3.30/뉴스1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입력 2023.03.30. 오전 9:38 수정 2023.03.30. 오전 9:39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 회의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과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3.03.30. kksmm99@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스시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스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승민 기자(kksmm99@newsis.com)

인사말하는 정만기 부회장

입력 2023.03.30. 오전 9:38 수정 2023.03.30. 오전 9:39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 회의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30.

kkssmm99@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스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스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승민 기자(kkssmm99@newsis.com)

대화하는 정만기-아소 유타카 부회장

입력 2023.03.30. 오전 9:38 수정 2023.03.30. 오전 9:39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 회의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과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3.03.30. kkssmm99@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스시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스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승민 기자(kkssmm99@newsis.com)

인사말하는 정만기 부회장

입력 2023.03.30. 오전 9:38 수정 2023.03.30. 오전 9:39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 회의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30.

kkssmm99@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스시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스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승민 기자(kkssmm99@newsis.com)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입력 2023.03.30. 오전 9:38 수정 2023.03.30. 오전 9:39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 회의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과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3.03.30. kksmm99@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스시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스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승민 기자(kksmm99@newsis.com)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입력 2023.03.30. 오전 9:38 수정 2023.03.30. 오전 9:39



[서울=뉴스시스] 고승민 기자 =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 회의에서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과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2023.03.30. kksmm99@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스시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스시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승민 기자(kksmm99@newsis.com)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14:34 |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14:35



[서울=뉴스핌]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김 윤 한일경제협회장,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다카네 가즈마사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비롯한 한-일 양국 정부, 기업, 학계, 경제단체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2023.03.30 photo@newspim.com

기업들 “한일 정상회담이 대일 비즈니스에 긍정적 영향”

2023.03.30 18:02 입력

무역협회·중기중앙회 조사

일본과 수출 등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한일 정상회담이 자사의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한국기업 18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63.6%가 '한일 정상회담이 자사 비즈니스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한-일 FTA 체결(55.1%), 한일 경제 협력 플랫폼 구축(46.7%) 등을 꼽았다.

한일경제협력 플랫폼 구축이란 교역 및 투자 애로 해소, 규제철폐, 기술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중기중앙회가 3월 23~24일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한일 경제협력 인식조사'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일본과의 경제교류 확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6.6%에 달했다.

경제교류 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복수 응답)는 수출 확대(84.1%)가 압도적이고 이어 인적·기술 교류 확대(14.6%), 통관 등 물류 원활화(12.9%), 소재·부품·장비 수입 원활화(11.2%) 순이었다.

교류 확대를 주저하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일본 시장 매력도 저하(39.4%)가 가장 많이 꼽혔고 원자재 등 국산화 완료(19.7%), 통관절차 등 복잡(7.0%), 업무 디지털화 미비(4.2%), 한국 브랜드 평판 악화(2.8%)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일 경제 교류 확대 시 협력 또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복수 응답)로는 일본 시장 판로 개척 지원이 65.5%로 가장 많고 업종별 교류 확대 34.5%, 원천기술 협력과 디지털 콘텐츠 분야 협력이 각각 8.9%였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응답은 45.6%였으며 이 중 수출 감소가 21.4%로 가장 많고 이어 통관 지연 등 물류 차질(9.8%), 소재·부품·장비 수급 차질(7.0%), 기술·인적 교류 축소(6.8%) 등 순이었다.

한편 무역협회는 오는 5월 한일경제인회의의 사전 회의로서 한일 간 산업·무역·투자 등 공통 과제를 논의하는 한일신산업무역회의(제23회)를 5월 30일 COEX에서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공동 주관으로 한일 기업인 1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회의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첫 번째 민간 경제협력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계기로 반도체 소재·부품뿐만 아니라 K-콘텐츠, 소비재 등의 교역이 활성화되면 신규 무역 파트너 물색에 소요되었던 양국 기업들의 무역 거래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한경제협회 아소 유타카 부회장은 "지난 1월 이후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약 57만 명이고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약 7만 명으로 양국 외국인 방문객 1위 국가를 차지했다"며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일 양국 간 경제·인재·문화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달 기자 jindal@kita.net

<참고 1>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3.30.(목) 06:00 < 3.30.(목) 석간 > 배포 2023.3.29.(수)

정상회담 이후 피어나는 한일 경제계 협력 분위기(무드)

- 상반기 양국 경제계 간 5건 공식행사, 400여 기업 간 교류의 장 열려
-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정상회담 후 첫 번째로 양국 경제인 간 교류 개시
- 정상회담, 비즈니스에 도움된다 63.6%, 반도체·배터리·모빌리티 등 유망

12년 만에 양자 방문을 통한 역사적인 한일 정상회담(3.16, 도쿄)을 계기로 양국 경제계 간 교류 및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한일 주요 경제단체들은 협력 채널의 재개·신설 등을 통해 상반기 중 400여 개기업들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을 5차례 마련할 계획이다.

< 2023년 상반기 주요 한일 경제계 행사 >

행사명	주최	시기·장소	의제	참석
제23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한국무역협회 일한경제협회	3.30 서울	한일 경제연계 확대방안 한일 상호교류 증진방안	60개 사 100명
제55회 한일 경제인 회의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5.16~17 서울	첨단산업 한일 협력 강화 한일기업 제3국시장 공동진출	200개 사 300여 명
제12회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	대한상의 일본상의	5월 말 부산	양국 상의 협력방안 한일청년 인재플랫폼 구축방안	40개 사 140명
제1회 한일(간사이) 비즈니스 전략대화	대한상의 간사이 경제연합회	6월 중 부산 또는 오사카	2025오사카-2030부산 엑스포 연계 방안	40개 사 140명
2023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전경련 경단련	7월 초 서울	한일 양자 협력 제3국 내 한일 기업 협력방안	70개 사 100명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의 대표 기업인들이 참석한 한일 경제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3.17, 경단련회관)에서 “한일 관계개선을 계기로 양국 기업인들이 더 희망을 갖고 역동적으로 사업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양국 기업들이 협력사업을 구체화할 때이다.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규제도 풀고 선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에 대한 호응이다.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3.23.(목)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우리나라의 WTO 제소 철회에 이어, 3.21.(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향도 제시되면서 한일 간 본격적인 경제협력에 대해 경제계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김운 한일경제협회 회장은 “그동안 양국 기업 간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여의치 않았으나,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 협력, 제3국 공동진출 등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밝혔다.

한일 신산업무역협회 일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가시적 상황을 환영하며 어려운 국제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경제인들이 함께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7월 초 포함) 한일 주요 경제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할 교류의 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3.30일 한국무역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제23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4년 만에 대면회의로 서울에서 재개한다.

둘째, 5.16일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는 공동으로 한일 경제계간 대표적인 교류 행사인 제55회 한일 경제인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셋째, 2018년 이후 중단된 제12회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도 5월 말 부산에서 6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넷째, 6월 중 대한상의회와 일본 간사이(關西) 경제연합회 간 제1회 한일 비즈니스 전략대화가 부산 또는 오사카에서 개최되어 엑스포 유치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다섯째, 7월 초에는 전경련과 경단련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아시아지역 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11월 중 전경련-경단련 공동으로 일본 도쿄에서 「한일재계회의」 개최 예정

이의 일환으로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3.30.(목)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3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에는 양국 정부, 기업, 학계, 경제단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경제의 연계 확대 및 상호 교류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상세내용은 무역협회 별도 보도자료 참고

동 행사에는 정부 측에서도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그간 양국 경제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한 경제인들의 노고에 감사

표하고, 대통령의 일본 방문 후 한일 관계 정상화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경제계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 차관보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 강화, 자원무기화 공동 대응, 탄소중립 이행 협력, 제3국 공동 진출 등 한일 기업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무역협회가 우리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3.22~24, 187개사(社))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들의 63.6%가 한일 정상회담이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정상회담 계기로 향후 양국 기업인 간 인적교류 증가(60.4%), 대(對)일본 수출 증가(58.3%), 일본 내 영업·판매활동 개선(55.6%) 등의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응답하였다.

※ 소폭 긍정적(41.7%), 긍정적(21.9%), 영향없음(28.9%), 소폭 부정적(4.8%), 매우 부정적(2.7%)

이러한 양국 경제인 간 교류와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로 인하여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17일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전경련과 경단련은 상호투자 확대, 자원 무기화 공동대응, 글로벌 공급망 협력, 한일 간 인적교류 정상화, 제3국 진출 확대, 신산업 협력 등 경제교류를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경련은 후속과제로서 차세대 반도체, 배터리·전기차, 차세대 모빌리티 등을 3대 신산업 협력 프로젝트로 새로이 제안하였다.

※ 상세내용은 전경련 별도 보도자료 참고

【붙임】 2023년 상반기 한일 경제계 행사(안)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주원석 (044-203-5690)
		담당자	사무관	김아림 (044-203-5695) 이정훈 (044-203-5677)



① 제23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3.30, 서울)

- 주 최 : 韓 한국무역협회 - 日 일한경제협회
- 참석자 : 한일 정부, 기업, 학계, 경제단체 등 관계자 100여 명
- 의 제 : 한일 경제 연계 확대 방안, 한일 상호 교류 증진방안
※ 정상 방일(3.16~17)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한일 경제인 행사

② 제55회 한일 경제인 회의 (5.16~17, 서울)

- 주 최 : 韓 한일경제협회 - 日 일한경제협회
- 참석자 : 한일 정부인사, 기업 200개 社 300여 명
- 의 제 : 한일 경제계간 포괄적 협력방안 논의(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등)
※ 한일 간 대표적인 경제인 협의체로서 1969년 이후 매년 개최

③ 제12회 한일 상의 회장단 회의 (5월 말, 부산)

- 주 최 : 韓 대한상의 - 日 일본상의
- 참석자 : 韓 대한상의, 日 일본상의 회장단 등 40개 社 140여 명
- 의 제 : 양국상의 협력방안, 청년 인재 교류·취업 플랫폼 구축 등
※ '17년 제11차 회의 개최 이후 5년 만에 재개

④ 제1회 한일(간사이) 비즈니스 전략대화 (6월, 부산 또는 오사카)

- 주 최 : 韓 대한상의 - 日 간사이경제연합회
- 참석자 : 韓 대한상의, 日 간사이경제연합회 회장단 등 40개 社 140여 명
- 의 제 : 2025 오사카 - 2030 부산 엑스포 연계방안 등

⑤ 2023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 (7월 초, 서울)

- 주 최 : 韓 전경련 - 日 경단련
- 참석자 : 아시아지역 경제단체 포함 양국 기업 70개 社 100여 명
- 의 제 : 한일 양자 협력방안, 제3국 내 한일 기업 협력방안
※ 11월 중 전경련-경단련 공동 「한일재계회의」 개최 예정



3월 30일(목) 석간부터 보도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3월 30일(목)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문의 : 지역협력실 정희철 실장 (02-6000-5036)
김재호 과장 (02-6000-3362)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첫 민간 경제협력 회의 개최

-무협, '제23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개최-

- ◆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 함께 창조'라는 주제로 한일 경제인 100여 명 참석
- ◆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 강화"
- ◆ "혁신과 신규 고용을 이끌 스타트업 생태계 공동 육성을 위한 양국의 상호 교류를 확대할 시점"
- ◆ 우리 기업 중 63.6% "한일 정상회담, 비즈니스에 긍정적 영향"
*對日 수출 한국 기업 187개 대상 무역협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

-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30일(목)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일 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3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함
 - 동 행사는 지난 16일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 경제인 간 행사로서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 함께 창조'라는 주제로 양국 경제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됨
 - 한국 측에서는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GH홀딩스 이수철 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일본 측에서는 아소 유타카 아소 시멘트 회장 겸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일한경제협회 우치다 토시아키 전무이사 등이 참석함
- 이번 행사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세션에서는 ▲한일 경제

연계 확대 방안, 제2세션에서는 ▲한일 상호 교류 증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체 토론이 진행됨

- 한국 측 좌장인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개회 인사를 통해
 -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앞으로 양국 기업들은 인접국에서 기대되는 무역과 경제적 이익을 누려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일본 수출 규제 해제를 계기로 반도체 소재·부품뿐만 아니라 K-콘텐츠, 소비재 등의 교역이 활성화되면 신규 무역 파트너 물색에 소요되었던 양국 기업들의 무역 거래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함
- 일본 측 좌장인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 “코로나19 이후 막혔던 국경이 개방되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관광객이 급증했다”면서 “지난 1월 이후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약 57만 명이고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약 7만 명으로 양국 외국인 방문객 1위 국가를 차지했다”고 주장함
 - 그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일 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 간 경제·인재·문화 교류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져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함
-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경제계가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분야에서 한·일 간 협력 강화, 자원무기화 공동 대응, 탄소중립 이행 협력, 제3국 공동 진출 등 한일 기업 간 협력 확대를 위해 우리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제1세션의 일본 측 발표자인 마에카와 나오유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장은 ‘일한 스타트업 생태계’ 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 “한일 양국은 인구 감소, 높은 대외 의존도,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라는

대의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혁신과 신규 고용을 이끌 스타트업 생태계 공동 육성을 포함한 상호 교류를 확대할 시점”이라고 주장함

□ 제1세션의 한국 측 발표자인

이창우 국회 FTA 일자리센터장은

‘메가 FTA 시장 초국가 대응전략 과정’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 “ 지금 세계는 FTA 생태계 전쟁 중으로 세계 통상 환경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FTA 체결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소규모 FTA 체제에서 RCEP과 같은 메가 FTA로 전환하는 추세인 만큼, 한국도 다자 FTA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초국가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제2세션 발표자인

다카하시 마코토 시즈오카현 서울사무소장은

‘시즈오카현의 지역 외교’ 라는 발표를 통해

- “ 한일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역에 따른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상부상조 정신으로 자립적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간 지역 차원 문화 교류 등 민간 교류 확대와 우호 관계 구축을 통한 신뢰 형성을 통해 정부 기조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적인 한일 교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일간 교역은 양국의 경제규모와 인접 국가로서 기대되는 잠재력에 비하여 상당히 위축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한국 교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6%로 21.9%를 차지한 중국 대비 매우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경우 인접 국가인 독일과 벨기에가 프랑스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2%, 9.8%, 미국의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9%, 14.7%인 점을 감안하는 경우 한일간 교역은 잠재력 대비 매우 위축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대일(對日) 수출입 기업수도 2018년 47,928개에서 2022년에는 46,346개로 감소했으며, 총 무역업체에서 대일(對日) 무역업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20.8%에서 2022년에 18.3%로 감소함

- 이에 따라 지난 4년간(2019~2022) 한-일간 연평균 교역 증가율은 0.1%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교역증가율 10.6% 대비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남
- 한국무역협회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 * 설문 조사 기간: 3/22~24, 응답 기업 : 韓 187개사, 日 3개사
 - 한국 기업의 경우 응답 기업 중 63.6%가 “한일 정상회담이 자사 비즈니스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정상회담 이후 “양국 기업인 간 인적교류 증가^(60.4%), 對日 수출 증가^(58.3%), 일본 내 영업·판매활동 개선^(55.6%) 등으로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응답함
 - * 소폭 긍정적(41.7%), 긍정적(21.9%), 영향 없음(28.9%), 소폭 부정적(4.8%), 매우 부정적(2.7%)
 -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한일 FTA 체결^(55.1%), 한일 경제 협력 플랫폼 구축 (교역·투자 애로 해소, 규제철폐, 기술협력 등)^(47.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일본 기업 3개사는 모두 “한일 정상회담이 자사 비즈니스에 매우 긍정적 영향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양국 기업인 간 인적 교류 증가와 양국 간 기술 협력 증가가 기대된다”고 답변하면서 “또한 향후 세계 경제 블록화에 대비한 공급망 협력(원자재, 희토류, 배터리 소재 등), 양국 정부의 상대방 기업의 자국 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밝힘
-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한일 간 산업·무역·투자 등 공통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서, 금년 5월 16일(화) 개최 예정인 「한일경제인회의」 사전 회의 (서울, 롯데호텔)로 개최됨
 - 동 회의는 양국 기업이 경영에 활용할 실천적 과제 발굴은 물론 양국 정부 및 관계 기관 등에 정책 제언을 하는 전문가 회의임

붙임 :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요 1부. 끝.

제23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요

- 일 시 : 2023. 3. 30(목)
-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327호
- 참 석 자 : 100여명
 - 한국측 : 정만기 চে어맨 등 한국측 위원 (기업, 학계, 경제단체 등)
 - 일본측 : 아소 유타카 চে어맨 등 일본측 위원 (SJC멤버 등)
- 주 제 : 격동하는 비즈니스 환경,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
 - 1세션 : 한일 경제연계 확대
 - 2세션 : 한일 상호교류 증진
- 주 최 : 한국무역협회,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재단

일시	주요 내용	인사/발표자
09:00~09:25	■ 개회 및 양국 개회인사(체어맨)	□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09:25~09:45	■ 내빈인사	
09:45~10:05	■ 양국 코디네이터 인사 ■ 양국 주최기관 인사	□ 이수철 GH홀딩스 회장 □ 이와다레 요시히코 □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10:05~11:20	■ 세션(Ⅰ): 한일 경제연계 확대 * 양국 발표(20분씩) 후 질의응답(35분)	□ 이창우 국회FTA일자리센터장 □ 마에카와 나오유키 JETRO 서울사무소장
11:30~12:30	■ 오찬 (회의장 내, 도시락)	
12:40~13:55	■ 세션(Ⅱ): 한일 상호교류 증진 * 양국 발표(20분씩) 후 질의응답(35분)	□ 천경파 와이즈 포레스트(주) 대표이사 □ 다카하시 마코토 시즈오카현서울사무소장
13:55~14:15	■ 커피 브레이크	
14:15~15:10	■ 전체 토론	
15:10~15:30	■ 총괄인사 및 폐회	□ 양국 코디네이터 및 체어맨 총괄 □ 양국 사무국 인사